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

2018. 1. 2(화)

2018 신 년 사



완도군
WANDO COUNTY

신 년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완도의 가치와 위상을 드높이며, 지역발전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을 ‘고향 방문의 해’로 선포하며 전폭적인 지지로 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큰 힘이 되어 주신 전국 30만 향우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2018년은 나라 안팎으로 많은 변화와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중심의 보호무역 강화에 나설 것이고, 미국발 금리인상과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세계경제와 안보의 불확실성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새 정부 정책들이 본격 시행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4차 산업혁명 등 모든 분야에 혁명적 수준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력을 통해 2018년도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미래 신성장산업인 해양헬스케어 산업의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완도 미래 발전의 희망이 되는 첫 해”를 여는 만큼 비장한 각오로 흔들림 없는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새 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맞춰 모든 시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양식어장 청년근로자 고용급여 지원 등 지역실정에 맞는 든든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근해조업선단 완도항 유치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기차고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도 해양생물농공단지에는 올해 분양을 통해 지역특산물 특화단지로 육성하고, 이미 가동 중인 농공단지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완도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이자 밑거름입니다.

민선6기 출범 이후 해외시장 개척만이 침체된 국내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직시하고, 그동안 물꼬를 트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박람회 이후 완도 특산품의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져, 이제는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가 형성된 해외 현지 마켓에 완도전용 판매코너를 개설하고,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 미개척 해외시장에 대한 진출 교두보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600MW(메가와트)급 완도금일 해상풍력발전의 본격적인 개발을 통해 정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이를 수산양식 복합단지 조성과의 연계하는 새로운 융합형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는 지역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시범사업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사업’과 “청정바다 수도” 후속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활전복 해외수출의 전진기지가 될 완도항의 수출물류센터 조성 사업과 국가적으로 2024년까지 10억불 수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바다의 반도체 김 산업의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를 이겨낼 신품종 해조류 우량종자를 개발하고, 양식시설의 현대화로 어류산업의 안정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향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해양헬스케어 산업의 2019년 시범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준비해, 수산소득 1조원 시대를 향한 황금바다 프로젝트를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차별화 브랜드인 ‘완도자연그대로 농업’을 정착시키고, 6차산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집중 육성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과 난지과수, 지역 특화작목 육성 등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활로 모색을 위해 능동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매력 있는 섬, 가고 싶은 섬을 관광명소로 가꾸고, 권역별 관광자원은 특화시켜 5백만 관광객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슬로시티 재인증,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등 완도 전 지역을 하나로 묶어 ‘환경자산의 보물섬’으로 가꾸겠습니다.

전국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된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은 올해 시범사업 수행 후 국내 최초인 블루플래그 국제 인증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이를 해양헬스케어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12월 중국 국빈 방문시 이순신 장군과 진린 장군의 기념사업을 한국 완도군에서 펼치고 있다고 언급해, 완도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정체돼 왔던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과 관왕묘 재건에 속도를 높여 한·중 관계 회복에 대비한 중국 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가 담긴 가리포진 자원화 사업과 완도 법화사지 2차 정밀 발굴 등 장보고 선양사업 또한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영장형 학교 다목적체육관과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등 체육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체육인 교육·훈련센터 완도 유치를 위한 중장기 플랜도 더욱 구체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양과 산림문화를 접목한 동백 치유의 숲 착공과 황칠 특화림 조성 등 비교우위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 실용화 연구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합계출산율 2.0 지키기를 목표로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발굴해 인구감소에 대응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개설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후조리비 감면료도 지원하겠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어르신 돌봄사업을 더욱 강화해 부양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외딴섬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기관 간 원격진료 협진사업과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여성 권익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도 더욱 늘려가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 행정을 펼쳐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968억 원이 반영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사업은 2단계 구간의 조기착공과 금일~약산 간 연륙교 가설공사 시행 등 SOC 확충을 앞당기는데 역량을 집중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더욱 든든히 구축하겠습니다.

2월부터 완도어업정보통신국을 착공해 해양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도소방서 신설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군민 생명과 재산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여건에 맞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인재육성 장학사업과 100세 시대 평생교육은 날로 다양해지는 군민 욕구에 부응해 맞춤형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선6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소통과 화합의 군정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군민과의 소통과 참여 기회를 계속 확대해 따뜻한 완도 공동체를 형성하고, 군민중심의 친절봉사 행정으로 열린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앞서 가느냐 아니면 뒤쳐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중단 없는 완도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언제나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완도 미래발전의 마중물이 될 역점사업 추진에 신명을 바쳐, 군정이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완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연은 순풍이 아닌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라는 말처럼, 위기의 상황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한걸음 더 전진하며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의 꿈과 희망의 기회를 살려 완도가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 1. 2.

완도군수 신 우 철